



음악에 맞춰 좌우로 회전 ... “다이어트 효과 만점”

“딱히 재미는 없네요.” 디자인 전문업체 리디자인이 2012년 시제품으로 내놓은 운동기구 ‘답다라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었다. 답다라인은 양발을 회전판에 올리고 발바닥을 땅에 비비듯이 좌우로 회전하는 운동기구다.

여태영 대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댄스음악을 접목했다. 음악과 영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 스마트폰이나 TV로 음악을 들으면서 영상 속 동작을 따라 하는 지금의 답다라인이 탄생했다.

◆운동에 재미를 더하다

답다라인은 허리와 고관절을 회전시켜준다. 여 대표는 “코어라고 부르는 허리와 배 엉덩이 등 신체의 중심 근육을 자극해 발달시킨다”고 설명했다. 코어는 운동선수들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단련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다. 답다라인으로 무릎을 굽혔다 펴는 상하운동도 할 수 있다. 허벅지 근육인 대퇴근을 발달시켜 운동능력을 키운다.

여 대표는 “대퇴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에 잘 단련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무릎관절 주변 근육도 발달시켜 관절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제품 개발 당시 여 대표는 운동 기구에 춤이라는 요소를 접어넣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지루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그에게 댄스음악이 떠올랐다. 리디자인은 곧장 음악과 영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운동기구에 율동 접목

허리 등 중심 근육 자극

중·고·중등에 수출

의료기기도 연내 출시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활용한 마케팅도 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답다라인을 이용한 동영상 콘텐츠를 올려 매년 한 팀에 상금을 준다. 참가자들은 다른 팀의 동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동작을 개발한다. 답다라인 동영상 콘텐츠는 한류를 타고 세계 각지에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제품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국내에서 3000



여태영 리디자인 대표가 ‘답다라인’의 작동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지수 기자

개가 넘게 팔렸다. 올해부터는 중국과 일본 중등 국가 등에 본격적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디자인 회사다운 제품으로 승부 답다라인은 리디자인이 만든 첫 번째 제품이다. 1996년 설립된 이 회사는 발주처가 의뢰한 제품을 디자인하는 전문 용역업체였다. 직접 제품을 개발하기로 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다. 여 대표는 “당시 지속 가

능한 경영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계약이 끊기고 좀 나아지면 일이 몰리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자체 생산을 결정하고 ‘될 만한 제품’을 찾기 시작했다. 시중에서 팔리는 여러 제품의 장점을 살폈다. 그리고 제품 콘셉트를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사용이 간단한 운동기구’로 정해 답다라인을 개발했다. 15년간의 디자인 경험을 기

반으로 만든 제품이기에 때문에 디자인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대한민국 우수디자인상’을 받기도 했다.

여 대표는 디자인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답다라인의 새로운 버전은 이미 개발을 마쳤다. 후발주자들이 몰리면 즉시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 올해 말에는 의료기기 신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여 대표는 “운동기구와 의료기기 등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는 중견 생활가전업체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대일(art@hankyung.com)로 선정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파인피닉스의 방향·탈취 기능 테이블프 크리너(02)2233-6202 △더샵점영의 바이오토너(02)6205-9200 △리디자인의 답다라인(051)304-9060 △지오클라비스의 지오필로우(070)7098-2298



김종재 포항 팀장(맨 오른쪽)이 하수재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김낙훈 기자

생활하수 모아 공업용수로 재활용

포항 120개사·용수비용 20%↓ 산단공·중소, 사업화 주도

“하루 10만t의 하수를 재활용해 120여개 기업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예전보다 20%가량 공업용수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상도동 포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운영 중인 포항의 김성민 소장은 “지난 1년 동안 하수재이용시설을 가동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이제는 각국에서 견학 오는 첨단시설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규모의 단일 시설이 없고 운영능력을 검증받은 곳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 플랜트나 운영 노하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시설은 포항 지역 하수를 모아 전(前)처리와 역삼투압처리를 거쳐 불순물을 깨끗이 걸러내 기업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설비다. 부지 1만6200㎡에 건립된 이 시설의 용수 공급능력은 소규모 담 탱 개와 비슷하다고 포항 측은 설명했다. 주요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을 수목과 전시장으로 꾸미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설

했다. 지하에는 원통 모양의 역삼투압설비가 설치돼 있다. 이 시설을 보려고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스위스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 10여개국의 물관리 책임자들이 방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와 공동으로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당성 검토와 시험설비 제작을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민자 등을 유치해 작년 8월 시설을 완공했다. 생태산업단지 사업으로 국비 3억 7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약 1400억원의 자금이 모였다. 포스코에서 분사한 수처리전문 중소기업인 포항시와 더불어 사업화를 주도했고 완공 후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권순갑 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권 생태산업단지사업단장은 “타당성 검토와 시험설비 제작이라는 마중물로 대규모 투자를 끌어낸 대표적인 생태산업단지 사업”이라며 “포항은 중장기적으로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인 데다 담 건설도 쉽지 않아 폐수 재활용을 적극 추진했다”고 말했다.

포항=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내년 유행색은 20대 형광색, 50대 원색”

삼화페인트 ‘컬러토크 세미나’

“페인트 제조회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색상은 1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페인트의 80% 이상이 흰색입니다. 좀 더 다양한 색채가 필요한 거죠.” (세계적인 색조회사 NCS 컬러AB의 부사장 칼버틸슨)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컬러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사가 열렸다. 삼화페인트가 ‘색상의 근원’이라는 주제로 ‘2015 컬러토크세미나(사진)’를 개최한 것. 소비자와 가전업체 관계자



를 비롯해 학생, 연구원 등 400명이 참석했다.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 측은 소비자 연령대에 따라 2016~2017년 유행할 색상을 제안했다. 정보기술(IT) 기기 활용도가 높은 20대 젊은 층엔 형광톤 컬러와 석조(石造)기법으

로 마감한 색상을, 30대를 위한 따뜻한 느낌의 블루톤과 구릿빛을 바탕으로 한 색상을 추천했다. 40대 고소득층에는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누드핑크와 파스텔톤 계열을, 은퇴를 앞두고 은퇴한 50대 이상을 위한 빨강, 녹색 같은 원색을 권했다.

칼버틸슨 부사장은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어내는 요인의 85%가 색깔이라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컬러는 중요하다”며 “최근 유행하는 색상은 어둡고 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내일채움공제 성과 ‘쫄쫄’

(중소 인계유치 지원사업)

1년 새 6700여명 가입

중소기업청은 내일채움공제 시행 1년간 중소기업 근로자 6700여명이 가입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8월 시작한 지원사업이다. 기업주와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함께 적립하는 방식이다.

업체는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는 5년 동안 근무하면 공동적립금을 초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평균 가입금액은 월 42만원(근로자 12만원·기업 30만원)이었다.

인력 부족이 심한 50인 미만 기업(90.5%)과 이직률이 높은 근로 3년 미만 인력(50.2%)의 가입 비중이 높았다. 가입 금액이 월 42만원일 때 근로자는 본인어 낸 돈의 약 3.6배인 2756만원을 받는다. 내년 부터는 적립금을 받을 때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박치형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은 “최근 3년간 핵심인력이 이직한 업체의 평균 매출이 연 2억7000만원가량 줄었다”며 “공제 가입자를 연내 1만명, 향후 5년간 6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동기자 gray@hankyung.com




법무부 29초 영화제

“법은 나에게 000이다”

언제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법, 여러분이 직접 찍고 만들고, 보여주세요!

출품기간 : 2015. 8. 10(월) ~ 9. 7(월)
 총 상금 : 2,000만원
 출품자격 : 제한없음
 주 제 : 나에게 “법은 000이다”

시 상 식 : 2015. 9. 17(목) 18 : 30
 시상장소 :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출 품 : 29초영화제 홈페이지 www.29sfilmm.com

주최 법무부 한국경제신문

주관 초영화제